
		<b>보 도 자 료</b>		<b>수도권매립지 종료</b>	
		배포일자	2021년 12월 7일(화) 총 2매		
담당 부서	문화콘텐츠과	담당자	• 대중문화산업팀장 정지연 ☎440-4001 • 담당자 오상진 ☎440-4003		
사진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**시민참여형 영상 공유 플랫폼 ‘인천N방송’**  
**애플 TV 국내 진출로 접근성 확장**  
**- 원하는 시간, 원하는 장소 어디서든 더 편하게 시청 가능 -**

시민참여형 영상 공유 플랫폼 ‘인천N방송’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.

인천광역시는 최근 애플TV의 국내 진출로 인천N방송의 시청 접근성이 확장됐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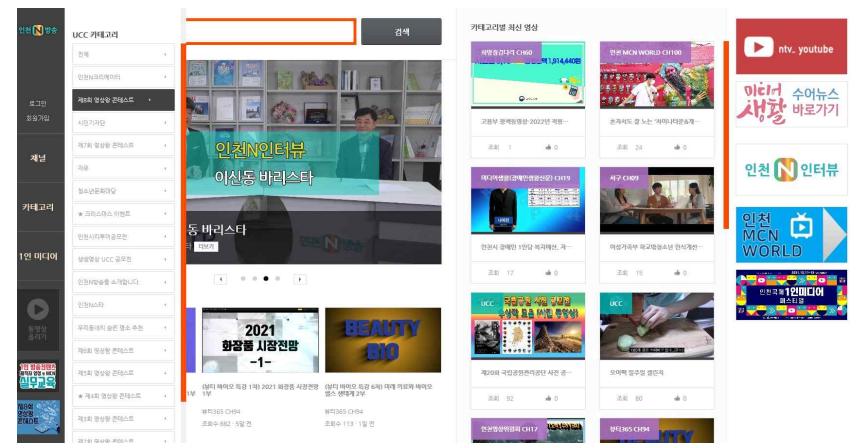
인천N방송은 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(인천TP)가 운영하는 영상공유 플랫폼으로 콘텐츠의 해외 송출을 위해 올해 4월 미국 애플의 다국적 방송서비스 애플 TV의 플랫폼 사업자인 KORTV와 계약을 맺은 바 있다.

계약을 통해 미주지역과 유럽 등 전 세계 230여 개국에 24시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, 최근 애플TV가 국내 진출에 따라 국내의 애플TV의 파트너사 플랫폼으로까지 콘텐츠 송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.

인천N방송은 전 세계 시청자들을 위해 기존 우수 콘텐츠뿐만 아니라, 인천의 고유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확보한 양질의 시민제작 콘텐츠를 애플TV에 지속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.

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인천N방송은 PC(incheonntv.com) 혹은 스마트폰 앱(인천N방송)다운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.

김경아 시 문화콘텐츠과장은 “인천N방송은 비대면이 일상이 된 시대의 흐름에 따라,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·1인 미디어 제작자 양성 및 교육·영상왕콘테스트 개최 등 시민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송출하는 시민참여형 양방향 방송으로 큰 의미가 있다”면서 “내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

<인천N방송 홈페이지>